쿠무다 수요음악회 '이-음 콘서트' 개막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정기 공연 예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무명 연주자에게 공연무대 제공
쿠무다 신축개관 문화프로젝트
2인 이상 단체 이메일 수시접수
앙상블 튠, 수에뇨 등 공연예정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 자원연계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가 4월 13일 쿠무다 지하 1층 콘서트 홀에서 '쿠무다와 함께하는 수요음악회 2022 이-음 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가 4월 13일 쿠무다 지하 1층 콘서트 홀에서 '쿠무다와 함께하는 수요음악회 2022 이-음 콘서트(이하 이-음 콘서트)'를 개최했다.

첫 번째 이-음 콘서트의 시작을 알린 '앙상블 튠(Enscmble Tune)'은 실내악의 다채로운 화음을 선보이며 플루트 및 첼로, 피아노 등을 통해 봄에 어울리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음 콘서트는 관객과 연주 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주 단체와 공연기획자 사이의 연결(이음, connection)을 지향하기 위한 콘서트라는 의미로, 콘서트를 통해 공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연주자에게 무대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문화프로젝트이다. 이-음 콘서트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쿠무다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이-음 콘서트는 쿠무다와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의 자원을 연계해 진행하며 4월에는 '봄을 열다'를 주제로 '앙상블 튠(13일)', '수에뇨(20일)', '도담앙상블(27일)'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각 공연은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총 1시간 30분 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4월 연주 일정은 확정된 상태이며 연주 단체 수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차후 일정은 월 단위로 소개될 예정이다.

연주를 희망하는 음악 단체는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 이메일로 수시 접수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연주자가 선발된다. 신청대상의 나이와 지역 제한은 없으나 2인 이상의 단체로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 블로그(blog.naver.com/bcmdc)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10분 내외 연주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bcmdc@naver.com) 심사는 영상 내 오디오 음원을 추출 후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된다. 심사는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선정 시 개별 연락한다.

연주 단체 선정 기준은 첫째, 드레스코드가 제한된다. 셔츠, 재킷, 하의, 신발까지 검은색이 금지된다. 둘째, 해설 및 진행을 준비해야 한다. 연주 단체에서 직접 해설을 하지 못할 경우는 해설자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해야 한다.

'이-음 콘서트' 공연을 원하는 관객은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2022 이-음 콘서트'를 검색하면 매주 수요일 쿠무다 콘서트홀(부산)에서 열리는 공연별 티켓 구입이 가능하다. 티켓 비용은 한 좌석당 1만 원이다. 공연장에서는 별도의 티켓 교환 없이 네이버 모바일 티켓만 제시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연주자 프로필과 공연에 대한 상세 정보 역시 네이버 티켓 예매 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100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이-음 콘서트' 티켓 판매 수익은 전적으로 연주 단체에 전달돼 음악 활동을 후원한다.

쿠무다는 이음 콘서트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 기관도 별도 모집 중이다. 현재 안국선원, 봉암사, (재)보덕학회, ㈜더 대운, ㈜위너스미디어, ㈜W웨딩그룹, ㈜동원제일저축은행, 대동대학교 등이 후원을 약속했다.

쿠무다는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부산 달맞이 언덕을 거쳐 송정으로 전법의 여정을 이어온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를 뿌리로 둔 문화예술 사단법인이다. 대운사가 법회와 기도 등 신행생활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법향(法香) 가득한 종교적인 공간이라면,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는 현대인의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불교와 현대사회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북카페 쿠무다를 기반으로 꾸준히 문화포교 노하우를 쌓고 다양한 자체 기획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문화예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매진해 왔다. 그리고 3년 가까운 불사 기간을 거쳐 복합명상문화센터를 완공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 맑은 색과 향기를 전하는 연꽃처럼, 쿠무다는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불자들의 귀의처, 시민들을 위한 힐링 명소로 힘찬 걸음을 딛고 있다"며 "쿠무다 수요음악회 '이-음 콘서트'가 연주자들에게 열린 희망의 무대로, 관객들에게는 정기 음악 공연에 참여하는 장이 되어 부산지역 음악 공연의 저변 확장은 물론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음악인과 시민 모두에게 '최상의 행복'을 마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불교사암聯, 희망기원 봉축등 밝혀

4월 22일~24일 제등행렬 및 행사 다채


울산광역시불교사암연합회는 4월 8일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울산광역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산옹)는 4월 8일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울산광역시불교사암연합회는 점등식을 통해 '희망이 꽃피는 세상으로'를 기원하며 모든 시민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해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행사에는 울산광역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연등축제봉행위원장 선덕정사, 대활 스님, 혜진 스님, 덕진 스님, 보화 스님, 진응 스님, 덕원 스님, 혜원 스님, 효암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박태완 중구청장, 이진용 BBS불교방송사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봉축위원장 산옹 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며 예배 공경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명에 가려진 참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올해 봉축 표어 '희망이 꽃피는 세상으로' 처럼 평화로운 울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행위원장 선덕정사는 "이번 봉축탑은 울산의 보물 간월사지 3층 석탑을 재현해 한 달간 빛을 밝힌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광명이 어려운 이웃들과 시민들에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부처님 말씀처럼 각자 마음에 등불을 밝히고 자기 자신과 부처님 법에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불교사암연합회는 봉축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4일까지 울산태화강연등축제를 이어간다. 4월 22일에는 제등행렬이 진행되며 23일에는 봉축법요식, 24일에는 태화문화차인협회의 다도시연 등 불교문화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연등축제 기간에는 불교용품, 우수 농수산물 전시 및 판매 등 소상공인 돕기 부스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지친 울산 시민들이 다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희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여천 무비 대종사 전등법계 건당식이 4월 8일 부산 문수선원에서 개최됐다.

무비 스님, 전등법계 건당식

4월 8일, 원봉 스님 등 9명 건당 제자 입실
문수경전연구회 〈화엄경〉 강의 인연으로
전등 법계보, 족자 등 건당 제자에게 전달

여천 무비 대종사 전등법계 건당식(傳燈法係 建幢式)이 4월 8일 부산 문수선원에서 개최됐다.

건당식을 통해 무비 스님은 정법 홍포를 당부하며 정진을 통해 성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건당식을 통해 기장 도솔암 원봉 스님, 월장사 자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지은 스님, 금산사 주지 범철 스님,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건당 입실했다. 건당 입실 제자는 문수경전연구회에서 〈화엄경〉을 공부하며 무비 스님의 가르침을 배워온 것이 인연이 됐다.

무비 스님은 전등 법계보(傳燈 法係譜)와 화엄(華嚴)을 적은 족자, 발우, 무비 스님이 강설한 내용이 담긴 〈직지심경〉을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무비 스님은 전등 법계보 가운데 '장대교망 녹인천지어(張大敎網 漉人天之魚),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펴서 인간과 천상의 고기를 건진다'란 의미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 수행정진을 강조했다.

무비 스님은 "'장대교망 녹인천지어'가 새겨진 해인도장 내용이 화엄이다. 완벽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면서 보완하고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불법과 인연을 맺었으나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분발하고 정진해 신도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며 탁마의 도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당 제자들은 무비 스님의 뜻을 받들어 정법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삼배를 올리고 감사 인사말을 전했다. 건당 입실 제자를 대표해 원봉 스님은 "오늘 여천 무비 스님의 건당 제자가 된 것을 깊이 감사한다"며 "저희 제자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해 가르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주 미륵암, 독성탱화 봉안 및 개원 3주년 법회


진주 미륵암은 4월10일 대웅전에서 독성탱화 봉안 및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진주 미륵암(주지 담산)은 4월10일 대웅전에서 독성탱화 봉안 및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봉안법회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진주 미륵암 담산 스님, 창원 안국사 성오 스님, 안국선원 주지 석산 스님, 조규일 진주시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사시예불로 시작해 봉안의식과 삼귀의,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종교를 믿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함이다. 진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믿고 살펴야 한다"며 "이번 점안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소통과 변화를 통해 지혜의 눈을 열어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비광명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셨다"며 "독성탱화를 모신 불자들의 기원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돕는 자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축사했다.

주지 담산 스님은 "해외에 있는 독성도를 환수하게 되었다. 봉안 법회 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이번 독성도를 새롭게 봉안하면서 기도 정진하는 도량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천연사, 아미타삼존불 점안 법회



창원 팔룡산 천연사(주지 운남)는 4월10일 경내 극락전에서 아미타 삼존불 명부시왕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점안법회는 천연사 중창불사를 회향하며 청정수행도량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법회로, 법회에는 세계불교 법왕청 최고위원 효공 스님, 종단협의회 이사 본원종 만핵 스님, 원흥종 진오 스님, 진원종 혜천 스님, 용화종 법광 스님, 동국대 최고경영자 대학원 8기 원호회 지선 스님, 강기운 국회의원, 신동응 前 창원대 교수, 이명숙 관음회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운남 스님은 "1998년부터 도량터를 마련하고 불사를 이어왔다. 오늘 법회는 천연사 극락전 낙성을 기념하고 아미타삼존불 십왕불을 모시는 자리이다. 함께해준 신도회와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청정 수행도량으로 일구고 극락보전이 많은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어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전하는 극락정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신흥사, 불교서각명인 특별전

4월 15일~5월 10일, 신성루
공진성 · 손경자 부부 39점 전시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내 신성루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불교서각명인 특별초대전'을 개최한다.

불교서각명인 특별초대전에서는 부부인 공진성, 손경자 작가의 불교서각 작품 39점을 감상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은 "사찰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문화를 선도해가기 위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아울러 신성루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 신흥사를 찾는 사람들이 쉼과 위안을 얻는 공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번째 문화행사"라고 설명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동훈 'Beyond(저편에, 너머에)'展 개막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2층 전시실



불자 서양화가 한동훈 씨의 개인전 'Beyond(저편에, 너머에)'가 4월13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막했다.

한동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석탑과 풍경(風磬) 등 불교적 이미지를 한국전통미학으로 확장한 그림 30여 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백혈병 투병 후 새롭게 시작할 시간을 마주한 심정을 담았으며 'Beyond(저편에, 너머에)' 전시 시리즈 중 첫 번째이다.

한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선, 불교미술대전 입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불화, 개금 등 문화재 복원 작업에도 앞장섰다. 후쿠오카 기타노 갤러리 초대전을 가진 바 있으며 네팔 상그릴라사원의 만다라, 부탄 왕립학교의 탕카 조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ART SPACE BEYOND' 소속작가로 활동 중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